

“실수하고 길 잃어도 괜찮아”... 피노키오 ‘빛나는 성장기’

강숙자오페라라인, 창작오페라 10일 오후 4시 초연
고전동화 새롭게 각색...믿음·사랑·진실 가치 전파
강숙자 총감독 “새로운 음악과 무대 언어로 완성”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하는 첫 걸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피노키오는 새로운 길을 떠난다. 낯선 세상 속에서 실수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변함없이 믿어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랑을 통해 진실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걸음씩 성장해간다.

누구나 한 번쯤 만나본 고전동화 속 피노키오가 새로운 이야기와 음악을 입고 창작오페라로 다시 태어난다.

(사)강숙자오페라라인(단장 강숙자)은 오는 10일 오후 4시와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제39회 정기연주회 창작 가족오페라 ‘피노키오’를 초연한다.

이번 작품은 기존 오페라를 새로운 연출로 선보이는 무대가 아니라, 고전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하고 대본과 음악을 창작해 처음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다.

작품은 피노키오가 낯선 세상을 경험하며 여러 선택과 시행착오를 거쳐 성장해가는 과정을 중심으

로 전개된다. 가족과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믿음과 사랑, 정직과 진실의 가치를 조명하며, 피노키오의 모험을 단순한 교훈적 이야기에서 삶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한다.

공연은 모두 3막으로 구성된다. 제1막 ‘꿈과 탄생’에서는 제페토의 소망 속에서 태어난 피노키오가 학교로 향하며 새로운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이 그려진다.

제2막 ‘유혹과 모험’에서는 여우와 고양이의 꾀에 빠져 황금나무의 비밀을 믿고 길을 잃는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제3막 ‘돌아와, 피노키오’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제페토와 다시 만나기까지의 여정을 통해 사랑과 용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익숙한 설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누구나 살아가며 마주하는 선택과 실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가족과 관계가 한 사람의 성장에 미치는 의미를 피노키오의 여정에 담았다.



강숙자

어린이에게는 피노키오와 함께 떠나는 모험과 성장의 이야기로, 어른에게는 가족과 인간관계 속 믿음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 수 있는 작품으로 다가간다.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도 아이와 어른이 각자의 시선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발견하고, 공연이 끝



송지나

난 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족오페라를 지향한다.

특히 친숙한 원작의 인물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된 대본과 음악을 더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피노키오를 하나의 새로운 오페라 작품으로 만나는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작품의 총감독은 강숙자 단장이 맡는다. 대본과 작사·작곡은 송지나씨가 맡아 작품을 재구성했으며, 김병무가 지휘, 최민이 연출, 조정희가 조연출을 각각 맡아 무대 위에 구현한다.

주인공 피노키오 역에는 양세미·최효리가 출연한다. 제페토 역 조재만, 푸른요정 역 박선경, 여우 역 조안나, 고양이·참치 역 정동근, 등불심자·단장 역 황동인, 할리퀸 역 김명선이 함께한다.

귀뚜라미 역에는 어린이 배우 임하은과 류이륜, 톨로비나 역에는 안아린과 최다아가 출연하며, 리더스 중창단도 무대에 올라 작품에 생동감을 더한다.

강숙자오페라라인은 이번 창작오페라를 통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유효한 가족과 관계의 의미, 정직과 진실의 가치,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믿음과 사랑이 갖는 의미를 새로운 음악과 무대에 담아 관객에게 전한다.

강숙자 총감독은 “새로운 음악과 무대 언어로 창작오페라 ‘피노키오’를 완성했다”며 “이 무대의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람 연령은 만 7세 이상이며, NOL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입장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시민 생활권 가까이...‘당신곁에’ 하반기 공연 시작

광주문화재단이 시민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하반기 공연을 시작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3일 시작, 오는 11월 21일까지 5개 자치구 공연과 생활권 문화공간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당신곁에’ 하반기 공연을 진행한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찾아가는 문화공연-당신곁에’는 올해 2년 차를 맞은 사업이다.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의 공원과 생활권 문화공간을 찾아 매주 토요일 무료 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공연은 상·하반기를 합쳐 모두 32회로 구성됐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14회 공연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총 18회 공연으로 시민들을 다시 찾아가는다.

상반기 공연에 대한 시민 반응도 높았다.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는 모두 175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99.5%인 174명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공연장을 꾸준히 찾아가는 ‘고정 관객’도

생겼다. 북구에 거주하는 문귀현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진에게 문화공연 관람 등 일상 속 문화활동을 권유받은 것을 계기로 공연장을 찾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우연히 ‘찾아가는 문화공연’ 홍보물을 접한 뒤부터 5개 자치구별 공연 일정을 직접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연 현장을 꾸준히 찾아가다니며 일상 속 삶과 즐거움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공연은 매주 토요일 이어진다. 첫째·

11월 21일까지 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서
밴드·무용·연극·국악 등 총 18회 선보여

셋째 주 토요일에는 동구 문화센터 앞, 남구 물빛근린공원, 광산구 수완호수공원에서 진행된다.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는 서구 상무시민공원과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열린다. 공연은 회당 약 50분간 무료로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밴드, 무용, 연극, 클래식, 전통연희, 국악, 합창, 비보이, 융복합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가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지역 공연단체를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사업예술단 등이 참여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

보일 예정이다.

첫 공연이 열린 지난 3일에는 동구 문화센터 앞에서 언제나봄의 ‘언제나 봄과 함께하는 음악산책’, 남구 물빛근린공원에서 더문댄스컴퍼니의 ‘잡나의 춤, 영원의 전통’, 광산구 수완호수공원에서 으뜸새의 ‘FTT: 연희의 새물결’이 펼쳐졌다.

오는 10일에는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극단 예지몽의 연극 ‘평상 위의 할머니’와 빅보스 마칭 밴드의 대중음악 공연 ‘BIGBOSS TIME! : 길을 열다’가 진행된다.

17일과 24일에도 클래식·합창·국악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며,

11월에는 대중음악·무용·클래식·국악·합창·사물놀이·하프·융복합 퍼포먼스 등으로 장르를 넓혀 11월 21일까지 공연을 이어간다.

모든 공연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아외공연 특성상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인스타그램(@gjcf_withyou)을 통해 안내된다. 자세한 공연 일정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인간다움’의 답을 묻다

광주cpbc, 창사 30주년 특집 라디오 오늘 방송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와 인간의 가치를 조망하는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은 6일 오후 5시 평화방송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창사 30주년 기념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AI라는 파도 앞에서, 우리는’(제작 편수민 PD)을 방송한다고 5일 밝혔다.

오랜 기획과 취재 과정을 거쳐 완성한 이번 다큐멘터리는 AI 기술이 일상과 노동, 경제 구조 전반에

미치는 변화를 짚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온기와 ‘질문하는 역량’의 중요성을 다룬다. 특히 학계와 연구기관, 정치권, 종교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AI 질서를 주도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 도약할 가능성과 AI 시대의 인간 중심 해법을 살핀다.

다큐멘터리는 기술의 부가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전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AI 기본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또 AI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할 인

간의 ‘망설임’과 ‘공감’의 가치도 함께 조명한다.

다소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AI 담론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라디오 극화 형식으로 풀어낸다. AI 관련 영화 토론 모임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담고, 몰입도 높은 극화 구성을 교차 편집해 청취자의 공감대를 높였다.

편수민 PD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AI 기술의 격랑 속에 직면해 있지만, 이 파도의 끝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라며 “이번 다큐가 기술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소외되는 이웃 없이 다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자연의 세밀한 표정·사람 향한 애뜻한 마음 투영

윤영초 시집 ‘당신의 그리움은 어느 계절에 있나요’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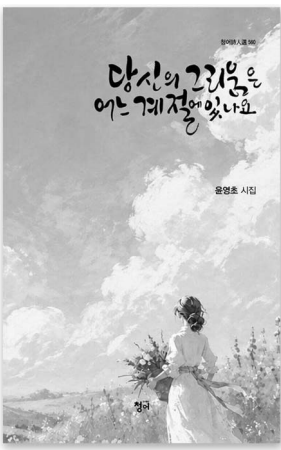
나주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영초 시인이 여덟 번째 시집 ‘당신의 그리움은 어느 계절에 있나요’(도서출판 청어귀)를 펴냈다.

청어시인전 560번째 권으로 나온 이번 시집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시편들은 자연의 순환을 따라가면서도 결국 한 사람의 내면으로 향한다. 시인의 시 세계를 관통하는 것은 자연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다. 귀촌 후 10년 동안 마주한 꽃과 나무, 텃밭과 정원, 시골의 고요한 새벽은 단순한 전원생활의 풍경에 머물지 않는다.

이처럼 자연은 시인에게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 전하는 또 하나의 언어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사람과 시간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 그것이 시를 쓰는 마음의 출발점이다.

표제작 ‘당신의 그리움은 어느 계절에 있나요’는 이 같은 시인의 시선을 집약한다. 계절마다 정성을 들여 가꾼 꽃을 바라보다 문득 자신의 청춘을 돌아



보고, 꽃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리움을 삭였던 시간을 떠올린다는 설명이다.

시인의 이번 제8시집에는 자연의 세밀한 표정과 사람을 향한 애뜻한 마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깊은 성찰이 132편의 시로 담겼다. “시인의 시는 한마디로 봄

꽃처럼 온은하고 부드러운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미술관, 청년작가 작품세계 비평으로 조명

임주작가 5명 포트폴리오 공개...전문가·동료와 오픈 크리틱

전남광주통합특별사업 광주미술관(관장 윤익)은 7일 오후 1시 청년예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입주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포트폴리오 리뷰 및 오픈 크리틱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크리틱 라운드, Critique Round’라는 명칭으로, 입주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전문가 및 동료 예술가들과의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작업 비평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식적 완성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일대일 단방향 비평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작가 전원과 초청 전문가, 외부 참관인이 함께 논의하는 집단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진행돼 보다 입체적인 피드백과 다채로운 담론 형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프로그램에는 2026년 청년예술센터 입주작가인 김명진(임체·설치), 박래현(사진·영상), 박의천(평면·회화), 윤석문(평면·회화), 이유빈(평면·회화)씨 등이 참여한다. 작가별 포트폴리오 개별 발제에 이어 초청 전문가들의 심층 비평

과 외부 참관인의 질의응답이 연이어 진행된다.

비평가로는 지난 6월과 7월 진행된 청년작가 역량강화 워크숍(A-Ground)의 강연자로 함께했던 백종욱 미술생태연구소장과 임종은 독립큐레이터, 그리고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 등 3명이 초청됐다. 이들은 작가들의 작업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과 비평을 건넬 계획이다.

윤익 관장은 “이번 오픈 크리틱은 청년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정밀한 이정표를 세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일반 시민 및 예술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문화예술 애호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며, 총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광주미술관 홈페이지(https://giartmuse.jeonnam-gwangju.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613-7132.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